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말씀술루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밋모라는 섬에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많은 상징과 숫자가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독특한 이단에 빠지기도 했지만, 당시 신자들은 이 글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부분에 미래에 될 일들을 계시하기에 앞서서 당시 현재에 있던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 교회에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이어서 그 교회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는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계2:1) 계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 앞 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해설이 나옵니다(계1:20).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양 떼를 치고 있는 감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손을 해하지 않고는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붙드신 그분은, 붙드실 수도 있고 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양 받는 양들의 최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 때에만 진리를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책망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하찮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고약한 무리가 교회를 꺾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양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목회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인 사교적인 집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설교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주는 교훈/주님의 칭찬/더 중요한 것을 잃었기에/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첫사랑을 회복하는 길 II/첫사랑의 회복의 중요성/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사랑은 전투다 8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김남준 담임목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8:2-3)

들어가는 말

본문은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적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낮추심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한 날에는 번영했고, 시련과 역경의 날에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번영과 좌절 모두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어떻게 교만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교만은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궁극적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낙심하여 기울어졌기 때문에 삶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성품 앞에서 자신은 티끌뿐이며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관계로,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생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역경들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련과 역경 그 자체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갈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만났다면 그것을 낮아짐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시험하심

둘째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작업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를 조명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이 세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수없이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시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삶의 사태들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물으며 자기 내면의 세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가지고 삶의 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

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으로 제사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함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의 번영과 좌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마음에 터한
교만에 기인

시련과 역경을
낮아짐의 기회로 삼아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낼 수 있어
일용할 음식으로 하루를 살듯
그날의 말씀으로 삶을 극복해야

”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쇄신시키고,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이 있으셔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뜻이 있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뜻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바라다면 그는 끊임 없이 불만족에 시달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분 앞에 낮아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사태를 이기며 살아갈 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로 먹이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피곤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항상 고난만 당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으니, 이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8:3)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 매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찌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매일 아침 광야로 나아가 만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맺는말

거창한 구호나 거대한 계획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성경 읽고, 깨닫고, 굳게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로부터 삶의 모든 상황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이유입니다. ✕

담임목사 동정

- 3.1.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3.4. 장년 L-BTS
- 3.5. 구역장강의
- 3.8.-17. 미국 덴버신학교 섬김의 날
- 3.18. 장년 L-BTS
- 3.19. 새가족환영회
- 3.20. 농어촌목회자 부부세미나 개최예배 설교
- 3.22. 극동방송(FEBC) 초대석 녹음
- 3.26. 정기당회
- 3.27. 사모인턴십 특강
- 3.28. 무슬림권 선교사 열린교회 방문
- 3.30. 고신대 섬김의날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2023 청년부 섬김조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올해 청년부의 키워드는 ‘영광’(The Glory)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참된 사랑이시며 사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고 같은 달 ‘목양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리더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4월 ‘말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회심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오는 7월 ‘섬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목양과 사역을 위해 청년부는 목양국과 기능국으로 조직을 나누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양국은 나이를 기준으로 총 네 개의 국(1국: 20세-26세, 2국: 27세-32세, 3국: 33세-39세, 4국: 40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능국은 이 일을 돕기 위해 청년부 사역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공동체적 은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교역자

- 박철웅 목사: 총괄, 목양3국
- 명성인 목사: 목양2국
- 김현희 전도사: 목양4국
- 김수민 강도사: 찬양팀, 목양1국

목양 1국

목양국장

박현민

목양팀장

박유민
이혜연
우종수

새신자·성장반 팀장

이동원

목양 2국

목양국장

배지우

목양팀장

권오영
이태경
김나연

새신자·성장반 팀장

석은비

목양 3국

목양국장

신효리원

목양팀장

이소연
한우리

새신자·성장반 팀장

이재희

목양 4국

목양국장

조희선

재무국장

김다이

새가족국

행정팀장: 윤지선

영접팀장, 조장: 정이석

안내팀장, 조장: 김예진

조장: 김기쁨B

기능국

행정국장 유형준

재무국장 김찬영

예배국장 송원재

교육국장 정다희

기도국장 박준요

선교국장 이혜련

홍보국장 정신혜

복지국장 신진수

교회 소식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헌금

- 일시: 3월 12일(주일) 예배 시
- 온라인헌금계좌: 신한은행 140-009-997386(열린교회경상)

새생명전도학교

- 일시: 3월 4일(토)~3월 18일(토) 오전 10:30~오후 4시 (매주 토요일, 3주)
- 장소: 본관 1층 예배실, 세미나실, 자모실, 사랑부실
- 강사: 권경철 목사
- 문의: 이월순 전도사

기도학교

- 일시: 3월 9일(목)~3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매주 목요일, 4주)
- 장소: 별관 2층 교육실 4
- 강사: 조희숙 전도사
- 문의: 이병미 권사

교리반

- 일시: 3월 16일(목)~5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매주 목요일, 10주)

- 장소: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
- 강사: 김성구 목사
- 문의: 김민정 전도사

신약개관학교

- 일시: 3월 18일(토)~4월 22일(토) 오후 7시 (매주 토요일, 6주)
- 장소: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
- 강사: 정창욱 협동목사(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 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
- 문의: 김진산 전도사

선교학교

- 일시: 3월 26일(주일)~4월 23일(주일) 오후 6시 30분(매주 주일, 5주)
- 장소: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
- 문의: 이석웅 집사

교회학교 교육 일정

세빛교실

- 영유아주제: 다윗을 통해 인내를 배워요

- 학부모주제: 가정에서 본이 되는 부모되기
- 일시: 3월 18일~4월 1일 (매주 토요일, 3주) 오전 11시
- 대상: 영아부(3세), 유아부(5세) 영유아 및 학부모

등불학교

- 주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 일시: 3월 26일~5월 14일 (매주 주일, 8주) 오후 3시
- 대상: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

등대학교

- 주제: 하나님이 지으신 성(性), 바르게 이해하기
- 일정: 3월 11일 ~ 4월 8일 (매주 토요일, 5주) 오전 10시
- 대상: 중등부, 고등부 학생

3월 주요사역

- 1일(수)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 8일(수)-17일(금) 담임목사님 덴버신학교 섬김의 날(미국)
- 15일(수) 빌리그래함 50주년 기념 전도집회를 위한 사전집회
- 19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 20일(월)-22일(수)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세미나
- 26일(주일) 정기당회
- 30일(목) 신학교(고신) 섬김의 날

학부모세미나(미취학부)후기

아이는 나의 동역자였다



박송희 장년3교구
psh8836@naver.com

2022년은 무척 고된 해였다. 쉽 없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깊은 밤은 나에게 스올 자체였고, 해가 뜨면 나의 괴로움과는 상관없이 주부의 일상을 살아내야만 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살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 몇 해 전, 떠들떠들 겨우 외웠던 말씀 몇 구절은 일상을 버티게 해주었다. 그 말씀들은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용서라는 허들을 뛰어넘게 하였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했다. 말씀 암송의 힘을 체험했기에, 올해 7세가 된 자녀에게도 말씀 암송을 시키고 싶었다. 물론 작년에도 말씀 암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유아부에서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다. 사실상 어른인 나도 뒤돌아서면 잊는데, 아이가 단번에 잘 외우겠나 싶어서 기대치를 대폭 낮추고 그저 여러 번의 음독에도 기특하다 칭찬해주었고, 암송대회가 있다 할 때만 하루 베퉼치기로 암송하곤 했다.

하지만 말씀 덕택에 고난의 행군을 무사히 마친 어머니는 작년과 달라졌다. 나와 아이의 영혼에 말씀을 제대로 새기고 싶었다. 이에 시간을 정해 암송 계획을 짰지만, 아이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기, 도망가기, 귀막기, 옆드리기, 눕기 등 여러 모양으로 말씀 암송을 거부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갑갑했다. 100구절 암송한다는 다른 집 아이는

마치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였다. 미취학 아이에게는 암송이 아직 무리인 걸까, 어떻게 아이와 함께 암송을 해야 하나,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에 백은실 사모님의 ‘말씀 심는 부모’ 세미나 소식은 무척 반가웠다.

세미나의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7)에 따른 말씀 심는 ‘일상의 습관’들이었다. 그리고 ‘암송시키려 하지 말고 계속 들려주라’는 말씀은 각 잡고 자리 잡고 앉아 암송만 시키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버리고 암송의 생활화로 온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바로 적용해보았다. 일단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였다. 수시로 보고 읽어주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 암송할 말씀들은 ① 침대 머리 위-기상, 취침 시 읽어주기 ② 현관 앞-집 밖을 나서기 전 5번 읽어주기 ③ 옷방-옷 갈아입을 때 읽어주기. 그 외에도, 잠9:10은 공부 전에, 롬12:2은 영상 시청 전에, 고전10:31은 식사 전에 수시로 읽어주려 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러 번 중얼거려봐도 공중에 흩어지고 말았던 말씀들을 눈 가는 곳마다 붙여 말씀 노출 빈도를 높이니, 암기의 압박 없이 자연스레 나도 외우고, 아이도 외우고 있다. 덩으로 아이에게 들려주려 했던 말씀 암송이 내겐 목상이 되고, 목상은 기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나부터 신앙이 바로 선 후 아이에게 말씀을 심겠다는 것은 한참을 돌아가는 방법이었다. 사모님 말씀처럼 아이는 나의 동역자였다. 아이 덕분에 나의 영혼도 살고 있다. 역시 신앙생활은 함께해야 함이 맞았다.

두 번째로, 하루치 사랑과 하루치 인내로, 하루치 지혜로 살아가려 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에 남는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배당에서 눈물 펄펄 쏟았던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갔었다. 말씀 암송을 통해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루치 은혜로 살길 소망한다.

오늘도 부실한 나의 영혼에 공진단을 씹어 주듯이 말씀을 곹씹고 또 곹씹어본다. 말씀 암송으로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져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제 많이 컸으니 따로 자자’ 하면 속상해하는 내 품 안의 자식인 이 때에 말씀을 열심히 심어줘야겠다. 심어둔 말씀이 아이를 지도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길 믿는다. 말씀 암송과 더불어 가정예배도 속히 정착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고 싶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 ☆

의 마음을 그때그때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그러하시듯, 소중한 손님을 대하듯 기쁨으로 내 아이들과 진하고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

학부모세미나(청소년부)후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지현 장년5교구
hyun810420@hanmail.net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처음 열린교회에 왔을 때 큰 아이가 5세, 둘째 아이가 2세였습니다. 두 아이는 교회학교 유아부, 영아부에서부터 자라왔습니다. 어느덧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지금은 17세, 1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된 것이지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일 때부터 저는 늘 서툴고 실수가 많은 초보자 엄마였고, 큰 아이가 17세가 되었으니 이제 엄마로서 베테랑이 될 법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처음 고등학생이 된 자녀의 초보 엄마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며 많은 학부모 세미나와 다양한 교육에 참여해 왔고 이번 2023년도 학부모세미나도 지금까지 참석했던 것처럼 당연히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가족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이라 여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참석하여 몸이 피곤했지만, 강사님의 탁월한 말씀에 너무나 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열린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여 이제는 실제의 만남보다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더 자연스럽고, 꼭 회사에, 학교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일과 교육과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더욱이 인구의 저출산 시대로 점점 사회적 문제까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당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 그리고 앞으로는 취업난, 결혼문제까지 현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곧 우리 아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에 엄마인 저 또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를 가르칠 때 힘들고 어

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께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소리라고 들려질 수 있겠지만,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어 이제는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점점 아이가 성인으로서의 독립의 시기가 다가오니,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응원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알기에 이 말씀은 제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할 교사는 부모이고, 부모의 모습이 교재가 된다는 말씀은 내가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인생의 파도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등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부모세미나의 많은 강사님이 강조해 주신 것이 가정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예배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번 도전을 받으며 노력해 본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현재는 주말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데, 몇 해 전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모두 취합해 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어 예배시간마다 함께 기도했고, 한 해가 지나 돌아보았을 때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던 기억을 돌이켜 봅니다. 올해는 그때처럼 우리 가족 기도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 부모와의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부모인 저에게 말을 걸며 대화하기를 시도하는 아이들

의 마음을 그때그때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그러하시듯, 소중한 손님을 대하듯 기쁨으로 내 아이들과 진하고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정년6교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4절

교사학교 후기

회심과 회심의 보존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번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공동강의 1회, 선택강의 2회를 총 3주에 걸쳐 주차별로 진행하였습니다. 1주 차 공동강의에서는 교회학교의 목표가 ‘회심과 회심의 보존’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었고, 담임목사님의 저서인 <교사 리바이벌>을 통해 교사의 사명과 영혼사랑, 경건생활(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역사를 통해서는 특히 현재의 특수성(세상문화, 경쟁적 교육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회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3주 차에는 주차별로 각각 5개의 선택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창조론·진화론, 초등생 공과지도, 청소년 진로, 저출산시대 교회역할, 우리반 똘똘뭉쳐 하나되는 방법, 미취학생 눈높이 말씀제시, 성경적 성(性) 가치관, “느려도 괜찮아” 어떻게 도울까?, 청소년의 미디어·학습관계의 주제로 평소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부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출석교인 중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여 좀 더

친밀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Zoom) 회심집회, 성경학교, 교사기도회, 공과공부, 여름밤·겨울밤 성경활동(방학기간 중 저녁시간 약 30분간 교역자와 성경교육) 등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해오던 ‘친.들.예.’(친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이야기, 친구초청주일)를 대신하여, ‘우.들.예.’(우리교회 장기결석 친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이야기), ‘가.들.예.’(믿지않는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획하여, 아이들이 전도대상자들에게 직접 녹화한 복음관련 영상편지와 손수 그린 그림, 글짓기, 개인별 찬양녹화 영상 등을 모아 합창으로 편집하여 전달함으로 영혼사랑과 복음증거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구체적인 신앙활동을 돕기 위해 ‘신발장기도 캠페인’(등교전 신발장 앞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을 한 달간 한시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설비 확충 면에서도 원활한 실시간 방송 송출을 위한 방



송시스템 최신화, 온라인(Zoom) 공과모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확충, 열린빌딩 어린이 도서관 리뉴얼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교사교육으로 더 많은 숙제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나눔, 각 부서별 상황에 맞는 적용과 피드백, 보완된 또 다른 시도, 부서별 성공·실패사례 공유 등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기체적인 조직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상황을 보면 어느 한 분도 여유가 되고, 한가해서 섬기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동시간이 1시간이 넘는 장거리 섬김, 건강상 힘든 가운데 섬김, 직장의 특수성으로 부족한 시간 가운데 섬김, 가정사와 경제사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있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 영혼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과 눈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교회학교에 옮겨져 ‘회심과 회심의 보존’을 매 순간 뜨겁게 경험하는 교회학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학부모세미나(취학부) 후기

하영공! 하이세!



결혼 이후 이어진 출산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육아의 긴 여정의 나날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일 년에 여덟 달 내지 열 달은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참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 곁에서 부모님의 도움이라도 받으며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조차도 상황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공동체라도 있었다면 외로웠던 육아의 시간이 그나마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3살, 10살, 6살의 세 아이를 키워낸 지난 십여 년의 시간을 베풀준 건 다름 아닌 주일 예배에서 들려주시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교회를 세 아이와 함께 주일마다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수많은 고민과 좌절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며 더욱 말씀과 기도생활에 충실해야 함을 알면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파 아이들이 깨어있지 않는 새벽시간에 눈을 떠서 기도하려고 해도 쏟아지는 잠과 피로를 이겨낼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잠든 아이들을 보고 있노



나미연 장년3교구
nmy012@naver.com



라면 문득 세상 가치관에 쫓겨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아쉽게 지나간 시간이 생각나며 조바심이 납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회학교 목사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생각합니다.

2월 12일 주일에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의 고민과 필요에 맞춰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세미나는,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모인 부모들로 교육실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들었던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강의는 지금의 아이들과 부모의 삶과 현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사님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우리의 아이들, 그때를 위한 골든타임에 부모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빚어진 부모,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로 모인 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외쳤던 구호 “하영공(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 하이세(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결심한 공동체가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할 때가 이르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길을 보여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에서 열리는 강의들을 통해서도 자녀의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도움을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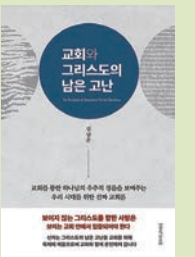
수 있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며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

3월 추천도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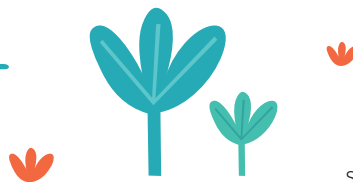
저자는 세상과 교회를 바꾸는 일은 신자 개인과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 있으며,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고난이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배타적 고난이었던 것에 반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완성을 위해 교회와 그 지체인 신자들이 동참하도록 남겨 놓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의 소산이다. ...김남준 목사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갖는 웅장한 신학적 구도 안에서, 어떻게 신자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남겨 놓으신 고난에 참여할 것인지를 낱알이 보여준다.(라이프북)

새가족위원세미나 후기

행복한 새가족위원의 지침을 배우다



김지혜 장년4교구
sweepekj@naver.com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후 작은 섬김 하나 자원하여 시작한 새가족 섬김이 어느덧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열린교회가 제 교회가 되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와 같이 내 교회를 만나기까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새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비 속에서도 이날까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또 거의 매주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는 해마다 2월에 새가족위원세미나를 했는데 저에게 이 시간은 늘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다녀간 새가족들의 이런저런 통계를 들으며 제가 하는 작은 섬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매년 목사님들의 권면, 장로님들의 기도와 말씀이 저에게는 섬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미나는 더 많은 위원이 참석하길 기대하며 장소가 넓은 교육실4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팀에 계시는 집사님들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끼쳐가는 십자 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소망하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겠다는 고백의 찬양은 위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랑의 불을 지펴주고 헌신을 불려일으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기준 장로님은 새가족위원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장로님도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과 새가족위원들의

섬김이 잘 뿌리내려 지속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섬김의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숙현 전도사님께서 새가족 사역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새가족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며, 88명의 새가족위원들과 각 팀들, 교구 교역자분들의 유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며 전체적인 섬김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팀이 하는 역할에 따라 안내팀과 영접팀은 함께 '교회소개팀'으로, 교육팀은 행정을 포함한 '교육행정팀', 목양팀은 교구 목양팀과 구분하기 위해 '정착팀'으로 명칭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 대상자의 기준, 작성해야 하는 서류 목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새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부분, 그 밖에 섬길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까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새가족위원을 위한 소책자도 매뉴얼처럼 제작해주셔서 이 모든 사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처음 섬기시는 분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늘 고민하며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도전이 되었고, 섬김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주의 깊게 영혼들의 필요를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족위원들이 섬김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져 새가족들이 새가족위원을 만나면서부터 성장반에 연결되기까지 은혜롭고 세심한 섬김 속에 교회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님께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21살에 회심하여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 안에 행복해 보이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 보였다고 하시며 교회의 얼굴인 새가족위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하는데 몸이 두 개의 통인 것처럼 상체를 숙여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시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환영하는 웃음으로 활짝 웃으라고 하시며 행복한 새가족위원이 되어서 이것이 자연스레 일어나도록 하라고 권면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섬김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던 때, 헌신을 다짐했던 처음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영혼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새가족위원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된 새가족 사역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교회와 영혼들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섬김을 통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접붙여져서, 교회의 목양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광의 그날을 꿈꿔 봅시다. ☆

런던시티미션선교세미나 후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박순정 장년1교구
chimney29@hanmail.net



지난 2월 12일, 선교센터 산하 위원장님들과 지역전도 핵심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런던시티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의 에프렘 버클 목사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런던시티미션 소속으로 열린교회와 협력하시게 된 김성태 선교사님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에프렘 버클 목사님은 먼저 런던시티미션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해외선교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런던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하자"는 구호 하에 1835년 데이비드 네이스미스(David Nasmyth)가 설립한 영국 국내 선교 전문 단체입니다. 런던시티미션은 런던 한가운데에 본부를 두고 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런던 복음화와 빈민 구호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설립 당시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런던은 매우 다른 곳이 되었지만,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런던시티미션의 목표는 설립 당시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에프렘 버클 목사님은 런던시티미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선교와 전도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런던시티미션은 가가호호 찾아다니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무작정 계획 없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고 인내로 실천하며 전도 대상자를 돌보는 세 부분에 주안점을 둔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축호전도를 할 때에는 그 아파트에 아는 사람을 통해 들

어가서 세대마다 문 앞에 전도지와 만남을 위한 연락처와 장소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는데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시티미션 소속의 도시 선교사들은 길에 나가서 거점을 세우고 전도지와 책을 보급하고 있으며, 그 책 중에는 담임목사님의 <게으름> 영어번역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런던시티미션은 고독과 외로움에 취약한 소외계층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곤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문시설과 연결시켜 도움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작은 도시 안양, 과천, 의왕에서 열린교회는 축호와 거점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병원과 고시원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회 초청까지 하고 있는데 런던시티미션과 사역의 닮은꼴은 교회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에프렘 버클 목사님은 교회의 세속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겉으로는 물질의 풍요로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릇된 사랑의 질서로 행복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야 할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

은 마음과 복음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3월에 진행되는 새생명전도학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런던만큼이나 세속화된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준비시켜주시길, 열린교회의 모든 전도사역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

새가족

장년

정재완(44)
정대운(51)
이은혜(77)
김정의(80)
김경남(78)
김미옥(81)
김종숙(72)
양경아(77)
박종순(74)
이경원(82)
조귀순(67)
황호선(80)

청년

이승우(64)
김태원(67)
이준호(86)
송지은(84)
김지성(79)
김남경(82)
김한나(88)
이찬희(90)
박세연(95)
김시은(97)
김지은(02)
문찬미(95)
송진우(86)
원서영(88)
이예원(98)
이예준(00)
윤병진(85)
조성훈(91)
윤지혜(89)
황인현(81)

경주자(교역자 칼럼)2

시선을 하나님께

유난히 추웠던 2021년 12월 20일,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 한 생명이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사람이 되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경험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오기까지 저희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후 6개월째에 실시한 기형아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형아 검사에서 400:1 정도를 기본 수치로 보는데, 저희 아이는 57:1로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와도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되는 경우도 많다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7개월 때에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의 몸속에 물이 차면 안 되는데, 저희 아이의 몸속에 자꾸만 물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아이의 몸속에 물이 차는 ‘태아수종’은 아이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저희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태아수종’이 맞았고, 아이는 몇 주 후에 뱃속에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기는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동을 잘 살피다가 멈추거나 줄어들면 곧바로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와 저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보다는 ‘엄마, 아빠가 미안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부모인 우리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속에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길고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간절히 기도할 힘도 없이, 그저 탄식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때에 다시 실시한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차올랐던 물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폐 속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었지

만, 일단 뱃속에서 물이 빠진 것은 너무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빈혈과 저산소증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가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만 이야기하시던 의사 선생님도 가끔 기적적으로 아이가 잘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며, 그 기적을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이는 열 달 기간을 엄마와 함께 지내며 세상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나 장기에 여러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체 일부의 기형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폐 속에 있는 물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못하여 기도삽관을 해야 했고, 2달의 기간 동안 호흡기구에 의존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심장 수술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의 죽음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살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저희 가정에 아름답고 눈물겨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저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저희를 안내해 준 아이에게 감사하고, 아이 또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시하’라고 지었습니다. 시하라는 이름은 한글로는 ‘시선을 하나님께’의 줄임말이며, 한자로는 ‘날개 아래’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평안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아름답고 눈물겨운 추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



정명원 유년부 전도사
jss98@naver.com

곰곰이 생각

외부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외부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부를 하게 하고, 돈을 모으게 하고, 몸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도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를 밀어내지요.



외부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시들지 않는 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그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열매를 맺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요한일서 4장 18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새공과 소개/ 사잇공과<성찬과 언약>

부활절 성찬식, 말씀으로 준비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많은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 의무와 교회 내 취식 금지가 있다 보니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성찬식을 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3년 동안 성찬을 하지 못하였으니 너무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되어 이제는 성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하려

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설교청취 공과로 <성찬과 언약> 시리즈를 선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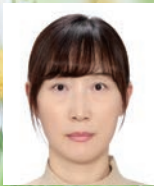
이 설교는 1996년도에 행해진 설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청취해야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이루어진 설교이고, 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이 주제의 설교를 찾아 듣기 쉽지 않으니, 이번 공과를 통해 <성찬과 언약>을 모두가 꼼꼼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과를 통해 성찬의 참된 의미와 신자의 삶이 성찬의 정신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리묵상집 <성찬과 언약>도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목양센터) ☆

만남 품은 열린교인

인생이 꼬일 때 기대하라

김윤정 장년3교구
gloryyj1216@naver.com



여장부 같았던 엄마는 신앙이 깊으셨고, 제가 중학생이 될 즈음 많이 아프셔서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시고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재작년, 저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한끼 금식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불현듯 머릿속에 한 장의 사진처럼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안방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못 하실 정도로 병이 중한 40대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며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하셨을까? 아! 남겨질 가족, 남편과 어린 딸들을 위해 기도하셨겠구나!’ 엄마의 사랑과 기도가 느껴지는 감사하고 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병과 싸우시던 엄마는 얼마 후에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셨지만, 엄마의 살아생전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매 모두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 올리셨을 기도 덕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주일성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교회에 다녔고 대학 졸업 후 통신 관련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인의 개척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세례 교육 시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당황하여 대답할 말을 못 찾았습니다. 그때 전도 사남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 나의 영혼에 의심이 생길 때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모의 소개로 권사님의 아들을 소개받아 결혼하고 세 자녀의 엄마가 되어 바쁘게 지내며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바람과는 달리, 약한 체력으로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회사에서 예전 같은 소명 없이 지내던 중 희망퇴직이라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다 보니 안팎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 건강 악화, 남편 직장 문제, 아들의 재수 등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길의 가장 힘든 시기인 2017년도에 열린교회에 오게 되었고 2018년도에는 하던 일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인생이 꼬일 때 기대하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구역예배 때 “제가 바로 인생의 가장 꼬인 시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역설적인 사실은 저의 현실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집사님의 정성 어린 섬김과 성장반에서 설교를 듣는 훈련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졌고, 사랑이 넘치는 구역에서 구역장님과 구역식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도 동역하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에서 선포되는 선명한 진리의 말씀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설교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저의 죄 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빛은 저를 비춰주었고 저의 삶 전체가 해석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비천한 모습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수없는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진리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영혼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며 새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의 자리에도 나아가게 되었는데 릴레이기도와 수요섬김기도, 화요전도, 목양팀과 일대일 양육 등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유익은 저 자신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섬김을 받기만 하다가 직접 섬김을 하는 자리에 가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의 손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섬김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역공과 <깊이 읽는 팔복>을 공부하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팔복의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애용하는 마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셨던 모습을 본받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올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믿음’을 남겨 주신 엄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일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새어머니와 남동생의 영혼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선물인 세 자녀가 가정에서도 매일 경건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잠시 떠나있는 남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맡겨 주신 구역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강도사	김수민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최영광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해선 조일권

파송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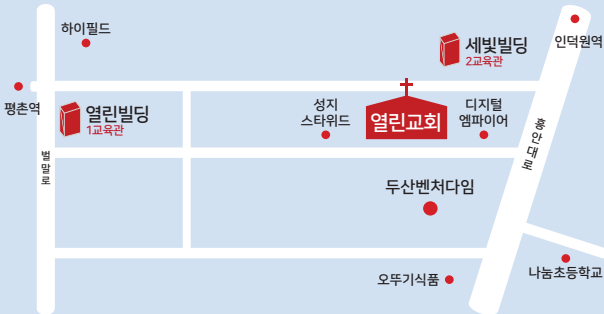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장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황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나 평촌역 3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남을 환대하는 삶을 살라. 환대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거할 공간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간은 남을 위해 비워줄수록 넓어진다.